EUROPE

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EUROPE**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2012년 유럽 애니메이션 시장 트렌드』

◎ **작성취지**

- 현재 유럽의 경제침체는 많은 산업분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주요국의 방송 산업 또한 이러한 변화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각자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유럽의 주요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동유럽 및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각 나라의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직,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어린이 채널 방송시장 트랜드를 분석함.

  ※ 작성자 : Catherine Kelly (Headway Media MD)

◎ **작성순서**

1. 「들어가기」
2. 「유럽 주요 국가의 경제와 방송 트렌드」

◎ **출처**

- Financial Times March 2012, CMC 2012, C21Media June 2012

1. 『들어가기』

- 현재 유럽의 경제 침체는 지속되고 있는 추세임. 영국의 경제 불황이 사실화 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사태가 확실시되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또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금융 구제가 보장이 된다면, 유럽 전체의 경제 위기를 최소한 예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임.
- 애니메이션 방송 산업을 살펴보면 여전히 불확실성이 팽배하여 많은 방송사들이 콘텐츠 구매에 신중성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의 많은 방송사들은 새로운 콘텐츠의 구매를 멈춤.

- 어린이들의 콘텐츠들은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의 주요 제작자들이 재정 차원에서 강점을 가지고 선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다른 **제작자들은 예산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합작 또는 콘텐츠 저작권을 더 많이 판매하는 등의 다른 옵션들을 찾고 있음.**
-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콘텐츠 저작권의 판매가 위기를 완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저작권이 성공적이라고 하여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저작권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애니메이션 비즈니스가 봉착한 가장 큰 위기로는 전체 제작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새 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의 수가 영향을 받음.
- 멀티플랫폼 저작권은(IP: Intellectual Property) 재정적인 투자 및 파트너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악화되는 방송 요금을 대신한 수익구조로써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음.
- 심지어 규모가 있는 저작권 소유회사들 또한 주문형 콘텐츠, 게임, 앱 등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멀티플랫폼의 기반을 다지는 데에 노력하고 있음.
- **유럽에서 디지털 채널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방송사들이 시청자들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며 이는 더 다양한 콘텐츠를 섭렵하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BAFTA 행사에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서의 방송사들의 역할과 주문형 콘텐츠와 함께 방송사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음.
- 또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추가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머천다이징이 가장 주요한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AR 또는 GPS 시스템과 같은 최신 기술을 이용한 게임들이 브랜드 또는 사용자들의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음.**

1. 『유럽 주요 국가의 경제와 방송 트렌드』

영국

- 영국의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든 이래 이러한 현상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
- 온라인과 구 미디어 사이의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음. 2012년 온라인 수익은 14%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텔레비전 광고 수익의 2012년 예상 성장률은 0.1% 밖에 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은 영국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영국의 올림픽과 다이아몬드 쥬빌리 행사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 최근의 영국의 은행들과 관련된 이슈는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정부는 2013년 4월에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현재 이에 따른 협의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 가을에 더 자세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임.
- 이는 영국의 산업 전체를 보았을 때 세금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제작자들의 IP 권리를 증대시킬 수 있고 프로덕션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영국 프로덕션의 회사 세금에 적용되는 경감률은 20-25 퍼센트로 작년 필름 프로덕션 회사들에 적용시 100백만 파운드에 다달 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됨.
- 7월 9일에 Sheffield에서 열린 제 9회 어린이 미디어 컨퍼런스 (the 9th children's Media Conference) 에서도 이러한 소식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줌.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 주제로 한 이 컨퍼런스에서는 BBC 가 어린이 콘텐츠를 주요 채널인 BBC1 과 BBC2에서 디지털 채널인 CBBC 와 CBeebies 로 옮긴다는 사실이 확인이 됨. 이에 따라 CBeebies 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언제든지 캐치업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주문형 채널을 런칭 한다고 발표함. CBBC 에서는 Damian Kavanagh를 대신하여 Cheryl Taylor 가 새로운 관리자로 임명되었으며 참신하면서도 교육적인 콘텐츠를 찾고 있음.
- 웨일즈 방송사인 S4C 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찾고 있으며, 이 날 컨퍼런스에서 1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가지고 처음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커미셔닝 한다는 발표가 이루어짐. 채녈 4 는 연령대가 조금 높은 어린이들을 타켓으로 한 라이브 액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ITV 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양 프로그램만을 찾고 있음.
- 맥라렌 포뮬라 1 (McLaren the Fomula 1) 레이싱 회사는 어린이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여 포뮬라 1 운전자들에 기반 한 애니메이션을 개발함. 이는 올해 초에 발표된 무링요 (Mourinho) 에 관한 축구 애니메이션의 뒤를 이은 것으로 보고 있음.
- 위니 더 푸우, 정글북과 같은 이미 성공한 클래식 애니메이션도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임.
- 방송사들은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도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찾고 있는 추세이며 BBC 는 컨퍼런스에서 미디어에 어린이들을 끌어들이고 시청자들과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슈퍼 커넥티비티 (super connectivity) 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힘.

프랑스

- 프랑스 경제는 2011년 첫 번째 분기에 1% 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놀랄만한 회복을 이루어냄. 새로운 대통령이 프랑스의 경제를 책임지게 되면서 방송 산업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지금까지 프랑스 시장에서 방송사들이 경쟁구도를 선점하는 방향으로 변화들이 이루어졌으며, Julien Borde 는 프랑스 3 채널의 리더로써 어린이 콘텐츠를 맡는 새로운 팀을 출범함. Pierre Siracusa 는 애니메이션 디렉터로 Tihphanie de Raguenel 은 청소년 담당 디렉터로 임명될 예정임.
- 프로그래밍 팀은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 중의 하나는 애니메이션과 라이프 액션이 합쳐진 형태로 새로운 형식의 애니메이션의 등장을 예고하며 방송사들의 경쟁구도가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임.
- 채널 프랑스 4 는 현재 연령대가 조금 더 높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청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 채널을 24시간 방영 형태로 바꾸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프랑스는 앞으로 3년 동안 9월에 카툰 포럼 (Cartoon forum) 을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전체 69개의 참가작 중에 선정된 39개의 작품들이 대부분 프랑스와 영국 작인 것으로 알려짐. 프랑스는 어린이 콘텐츠 산업, 세금 인센티브, 방송사 투자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지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여겨지지만, 올해의 예산은 3 백만 유로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럽의 경제위기에 따라 예산이 좀 더 경제적인 방향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보임. 현금 순환이 잘 되지 않는 현재의 유럽의 경제로 인해 합작 프로젝트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포럼 자체가 콘텐츠의 재정 상태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독일

- 독일 경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조금 더 강건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긴장상태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임.
- 독일의 방송시장은 37 백만 명의 텔레비전 시청자를 수반한 치열한 경쟁구도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주요 방송사들로는 Super RTL (월트 디즈니와 RTL 그룹의 지분이 각각 50 퍼센트로 공동 소유) 과 무료 채널 (FTA : Free to air) 영역을 선점하고 있는 KIKA 로 여겨짐.
- 합작 프로젝트들은 ZDF, ARD, NDR 과 국가 방송사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으며 ARD 와 ZDF 는 올해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어린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브랜딩을 한 KIKA 의 어린이 채널에 지분을 가지고 있음.
- NDR 은 지역 채널로 독일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ARD 와 KIKA 와 파트너쉽을 맺고 합작에 참여하는 데에 이점을 가지고 있음.
- ProSiebenSat1 은 2012년 첫 번째 분기에 수익률이 50.3 % 증가하고 시청자 점유율도 1 퍼센트에서 28.5 퍼센트로 증가하는 큰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늘어나는 독

일과 스칸디나비아의 광고 수익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독일 또한 성장하는 디지털 콘텐츠 트렌드에 따라가려는 일환 아래 독일 프로덕션 하우스는 World of Animation 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서 접속 가능한 콘텐츠 온라인 포탈을 제공할 계획임. 이 포탈 웹사이트에서는 제작자들이 온라인에 지나간 콘텐츠들의 백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광고수입의 일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 어린이 콘텐츠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기금들은 국가의 세금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음. 특히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이미 세금 인센티브 세도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도 2013 년에 이 제도를 런칭하기로 한 상황에서 독일이 이 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른 유럽 국가 경쟁자들에 비해 뒤처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임.

이탈리아

- 최근 재정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파급됨에 따라 이는 유로 존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음. 이 리포트에 앞서 최근 몇 주 동안 이탈리아의 주가는 급 폭락함.
- 시장이 파편화 되면서 이탈리아의 공공 방송사들은 여전히 위기를 마주하고 있음. 올해가 이탈리아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마지막 해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고 변화에 관련된 이슈들에 맞서고 있음.
- Rai TV 는 Rai Gulp 와 Rai YoYo 를 통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주문형 콘텐츠의 스트리밍 개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이슈에 발맞추어 채널을 스트리밍 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발 중에 있음.
- 유로 TV 플랫폼에 의해서 지원 받았었지만 현재는 디지털 공중파 채널로서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은 예전에 받았던 재정 지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폭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러한 전략들을 발전시키고 있음.
- 더 많은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습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의 경쟁 자체가 치열해지고 있음.

스페인

- 스페인은 유로존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긴축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이웃국가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가 100 십억만 유로 지원을 받은 것에 이어서 금융구제를 받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음.
- 스페인은 올해 카툰 포럼에 참가하면서 합작 프로젝트로 완성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음.
- TV3 에서는 지역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제작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음. 카탈로니아의 20 퍼센트에 다달 하는 시청률을 선점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이 방송그룹은 새로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스페인의 카탈란 지역에 애니메이션 상점들을 유치하는 기항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이 회사의 가장 큰 라이벌인 Clan TV 는 TVE 의 무료 디지털 채널로써 2.9 퍼센트에 다달 하는 시청자를 보유함. Clan TV 가 디지털 시장에서 첫 번째로 런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란 TV3 의 어린이 네트워트 Super 3 는 주로 15 퍼센트에서 20 퍼센트 사이의 4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타겟 마켓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유럽과 러시아

- 마켓 스페셜리스트인 NAPTE (National Association of Television Program Executives) 가 주최하는 Discop 컨퍼런스와 함께 동유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중임. 매년 열리는 마이애미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NAPTE 는 새로운 무대를 동유럽으로 옮기고 있음.
- 올해 6월에 제 1회 NAPTE 부다페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예정임.
- 중앙 유럽과 동유럽 지역의 15 개 국가의 아날로그에서 벗어난 디지털 시청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지역의 디지털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이에 더해, 이 지역에서 경제침체로 인해 디지털 지상파 TV (Digital Territorial Television: DDT) 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유료 TV 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
- 이는 프로그래밍에도 연쇄효과를 가져왔으며 글로벌 콘텐츠, 특히 미국 콘텐츠에 의존하는 현상이 줄어들면서 자국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띰. 이는 지역 콘텐츠를 활용하려는 거대 배급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폴란드는 DDT 의 도입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써, 폴란드의 최고 인기 채널인 TVN 과 공공 방송사인 TVP-1 은 DTT 채널의 도입에 따라 시청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이 드러남. 숫자상으로는 아직 적은 부분이지만 시장의 40 퍼센트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DTT 로 인해 시장이 파편화되는 모습을 보임.
- 추가적으로 TVN은 변화하는 젊은 타겟층의 시청 습관에 발맞추어 온라인 TVN 플레이어를 포함하여 온라인 멀티플랫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